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 5주일

제36권 16호(다해) 2016년 3월13일

[묵상]



<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얇은 자식을 가진 부모의 심정이라고나 할까?
고백성사까지 세우신 분이니,
감사함은 물론
그 자비에 더욱 신뢰 해야겠다.

단죄하지 않으신 주님을 본보기로 삼아
사실 아닌 억측을 통해 남을 판단하는 잘못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심판합니까?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로마 14:10).

남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판단을 받았을지라도,
죽일 죄목이 없다면 빌라도가 내린 터무니없는 사형선고를
말없이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자.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화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동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넷째주) 성소후원회(첫 목요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짜수달 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3째주 - ● 요셉회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제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한국 교회의 역사

토요 저녁 미사	(연)홍현태 요셉 (생) 서성용 베드로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 이운조 클라라,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홍주희 안나 & 유우학레 안나, 이강엽 바오로, 이용식 베드로 & 김준경 요한, 고준희 제임스, 이종수 마틴, 강영철 & 김성례, 권순봉 요안나, 현시영 요셉, 연옥영혼, 박희성 테레사 & 김계성 아가다, 한민교 세레자 요한 (생) 서성용 베드로, 황운제 베드로 가정, 문만석 베드로, 권진우 마태오 & 권진호 이사악, 이근모 마리오 & 이행자 리드비나, 김임식 마누엘라 수녀 &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Isaiah)43,16-21

화답송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3,8-14

복음 환호송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복음 요한(John)8,1-11
영성제송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4. 박해의 원인과 순교의 의미

4-1. 박해의 원인

이에 당시의 집권층에서는 전통 가치를 보존하고 양반의 정치적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천주교를 박해하게 되었다. 또한 신자들은 하느님을 왕보다 더 높임으로써 가장 높은 존재로 여기던 왕의 지위를 하느님 아래에 놓았다. 그리고 양반층의 공통된 의견이며 왕의 명령인 실정법에서 천주교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이 법을 어기며 계속해서 신앙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들은 양심법이 양반 사대부의 법보다 더 존귀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종교와 양심을 국가의 권위에 예속되는 것으로 보아 온 동양 문화의 전통에 젖은 집권층에서는 신자들의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다. 집권층은 천주교인들이 왕과 양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교회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였다. 한편 부패한 관리들은 교회 탄압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니, 이들은 천주교인들을 체포한 뒤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조정의 정식 명령을 받지 않고서도 관리들은 천주교인들에게 사사로이 박해를 가하였다. 또한 박해 시대 신자들은 집안의 형제 친척과 이웃들한테서도 박해를 당하였다. 당시 신자들은 일종의 정치범이며 사회 풍속을 혼란 시킨 풍속 사범, 이질적인 사상을 가진 사상범으로 처벌되었다. 연좌제 적용을 받고 있던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를 심하게 탄압함으로써 자신과 가문을 지키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천주교 박해는 조선 왕조의 독특한 정치 문화와 가족 제도 때문에 더욱 심화되어 갔다.

박해가 진행되자 신자들은 관원의 눈을 피해서 깊은 산속으로 피신하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부패한 관리의 탄압에 견디지 못한 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 산속으로 피신하였는데, 이들은 틈을 타서 민중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때로는 도적이 되어 관리들과 토호들을 괴롭혔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50	150	150
봉헌	255	255	282
성체	299	299	301
파견	233	233	153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사순 5주일의 전례 말씀들은 부활을 목전에 둔 우리 신앙인들에게 과거의 잘못과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믿음의 생활을 권고하 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예수님의 조건 없는 용서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서 그분께로 모여든 온 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드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는 악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 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질문입니다.

만일 모세의 율법대로 돌을 던져 죽이라고 하면 그 동안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의연한 모습을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셨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지구 상에서 인간인 한 누구도 단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누구를 단죄하는 한 기쁨도, 평화도, 행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누군가

를 판단하고 단죄하며 그를 향해 돌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둘러보면 모두가 서로 더 큰 돌을 들려고 무한경쟁을 하는 형국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을 내려놓는 것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부활을 코앞에 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보여 주고자 하십니다. 죄로부터의 용서!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죄 때문에 모두 죽어야 할 사람들이 용서를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을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제 수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이사 43,19)

사도 바오로의 확신대로 우리도 용서의 삶을 통해 부활을 향한 힘찬 행진을 시작합시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필리 3,10-11)

◆ 홍인식 마티아 신부 / 일원동성당 주임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범주 다니엘	박희자 마리아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정인욱, 강혜원 이민상
제2독서자	유민상 안토니오	한경숙 안나 이순자비비안나	박혜경 테나타 이순자비비안나
제물봉헌자			토남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순시기 ✦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미사가 오후 7시30분 저녁미사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진행됩니다.
3/18/16 (금)- 본당 꾸리아
3/25/16(성금요일)- 안나회 (오후 3시에 합니다.)

- ◆ 사순절 합동판공성사 : 3월 17일(목요일)
● 참회에절 : 7시(저녁미사 없음)
● 고백성사 : 7시 30분 시작
제외수요일부터 성삼일 전까지의 고백은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 들께서는 미사 전에 드리는 고해 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사순절 희생 애금 봉투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
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금 봉투는 주님 만찬
성 목요일(3월24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 평일 미사시간 임시 변경 안내
본당 신부님의 부활절 판공성사 출장관계로 평일 미사
시간을 변경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3월15일(화), 17일(목)아침미사(오전 8시30분)로 변경

- ◆ 부활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부활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부엌, 친교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 청소합니다.
● 일시 : 3월20일(성지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소공동체에서 점심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힘내서...열심히!)

- 청소 담당구역 : 구역 반별로 배정
● 문의 : 김준 방지거 소공동체부장 ☎ (310)625-3312

- ◆ 요셉회 모임변경
● 일시 : 오늘주일 (13일)
● 장소 : 친교장
● 본당 행사 관계로 모임을 두 번째주로 임시 변경
● 문의 : 정기은 비오 ☎ (310)780-2789

-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아치 에스 행사안내
● 일시 : 3월20일(주일) 2시
● 준비물 : 정장 혹은 한복, 묵주
● 대상 : 레지오 단원 및 협조단원
● 문의 : 남성철 베네딕도 ☎ (310)408-1443

- ◆ LA 대교구 성유 축성미사(Chrism Mass)
● 일시 : 3월21일(월) 오후 7시
● 장소 : LA 대교구 주교좌 성당(천사들의 모후 대성당)
555 Temple St.(+ Grand Av.) LA 90012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3월 13일 *토동 2,3반 : 짜장밥 (\$3)
* 주일학교 : 떡볶이 (3학년)
● 3월 20일 * 토서2반 : 북어국 (\$ 0 free)
* 주일학교 : 치킨샐러드샌드위치 (2학년)

수난감실 성체 조배 시간표 - 3월24일(성 목요일)/25일(성 금요일)

시간	담당 구역	시간	담당 구역
성 목요일 밤 9:30 ~ 11시	성가대	성 금요일 새벽 2시 ~ 3시	P.V.
성 목요일 밤 11시 ~ 12시	토런스 남	성 금요일 새벽 3시 ~ 4시	하버/카슨
성 금요일 자정 ~ 새벽 1시	토런스 서	성 금요일 새벽 4시 ~ 5시	토런스 북
성 금요일 새벽 1시 ~ 2시	토런스 동	성 금요일 아침 5시 ~ 6시	구역의 / 전례부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강인보 경철호 김기정 김상근 김선제 김성현 김양금 김여순 김옥보 김정순 김정아 김정엽 김종렬 김충섭 노혜숙 류현옥 박광자 박미경 박인식 방정복 배태임 변복순 송영미 안재만 양영자 오명섭 우영희 유경자 윤화경 윤희동 이경태 이근모 이민상 이상석 이원형 이은경 이종태 이종필 이효세 장영우 전재식 전정일 정규숙 정병훈 정순석 조준제 주대중 주용순 채희태 최기남 최상만 최의수 한장환 한혁수 현석주 홍광선	강인보 경철호 김기정 김선제 김양금 김충섭 노혜숙 박광자 박인식 방정복 안재만 양영자 유경자 윤화경 윤희동 이근모 이민상 이상석 이종태 이효세 장영우 전재식 정규숙 정순석 조준제 주대중 주용순 최기남 최상만 한장환 한혁수 홍광선
합계:\$5,350	합계 : \$2,270
주일미사헌금 : \$2,289	감사헌금 : \$700(박이레네, 한기웅) 2차헌금 : \$589

◆엠마오스 여행 초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본당 엠마오스 여행에 초대합니다.

- 일시: 3월 28일 월요일 8시 성당출발, 저녁 6시 성당 도착
- 여행지: 팜스프링 Aerial Tram 케이블카
- 회비: \$30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 스케줄

- March 13: 2nd grade
- March 20: 3rd grade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1.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시험
일시: 3월 20일 (주일) 오후 1시30분~3시
장소: 강당
2. 백삼위 한국학교 단어경시대회
일시: 3월 27일 (주일) - 각 반별로 진행

남가주 소식

◆2016 FIAT 장학금 프로그램

- 신청자격: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12th~ 대학, 대학원생), 북미주거주 코리안 어메리칸 신학생
- GPA3.0이상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3/15(온라인접수시작~5/ 31/2016)
- 신청문의-scholarship@fiat.org (714)702-9830

◆2016 FIAT 봉사인정 프로그램

- 자격: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9th~11th)
- GPA3.0이상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3/15(온라인접수시작~5/ 31/2016)
- 신청문의-service@fiat.org (714)702-9830

◆제 3회 학생 성화 미술대회

- 대상: 유치부, 초등부(저학년,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학생
- 주제: "예수님 이야기" ● 작품크기: 24x24 인치이내
- 참가비: \$10(Pay to : Mee Lee)
- 접수기간: 4월 15일 ~5월14일
- 문의: 가톨릭 미술가회 ☎(909)576-5773, (562)292-8999

◆주사위 가족모집안내

- 주사위란 "주님 사랑을 위하여" 의 약자로 주님의 사랑을 음악으로 전하기 위하여 모인 남가주의 천주교 생활 음악 단체입니다. 정기공연과 음악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함께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남녀보컬 각2명(오디션있음, 지정곡, 희망곡)
연출담당: 1~2명
- 자격: 30~40 세 가량의 가톨릭신자
- 신청: jusawil122@gmail.com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강순복 요세피나991-4838 3/19(토) 오후 5시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신중철 아브라함781-0787 3/12(토) 오후 6시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560-7120 3/13 (금) 오후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박동수베드로 218-7340 3/19(토)오후6시
	2	윤정옥 실비아 909-557-7490	이재호 펠릭스 909-557-7490 3/12 (토) 오후5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크리스티나 (레지나) 3/11(금) 오전10시 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십자가의길'로 대체 3/18(금)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하 데레사 634-6923 3/8(화) 오전11시, 성당
	3	김유미 사비나 850-2822	'십자가의길'로 대체
토런스 북 정병옥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이복임 엘리사벳 3/14(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1 /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조소영 수산나 804-7645 3/12(토) 오후 7시
P. V. 남정희 베네딕다 384-3289	1	남해나 베네딕다 384-3289	유현화 리디아541-4305 3/12(토)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안민수 베드로 793-6157 3/12(토) 오후6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허릿다 890.-1778 3/13 (일) 오후2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십자가의 길 3/12 (금)오후 7시30분, 성당

이번 주 단체 모임

제 단체모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	--

부끄러운 고백, 후회뿐인 기도

'어려면 안 되는데' 늘 이렇게 말하다가 / 한 생애가 끝나는 것 아닐까 /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 하느님과 수직적인 관계 /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 나 자신과의 곡선의 관계 / 시원하고 투명하길 바라지만 / 살아갈수록 메마르고 복잡하고 / 그래서 부끄러워요 / 좀 더 높이 비상 할 순 없는지 / 좀 더 넓게 트일 수는 없는지 / 좀 더 밝게 웃을 수는 없는지 나는 스스로 답답하여 / 자주 한숨 쉬고 남몰래 운답니다 / 그러나 이 또한 기도의 일부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 부끄러운 중에도 조금은 위로가 될 것 같다고 /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가슴을 치는 이 시간은 / 눈물 속에도 행복하다고 / 바람 속에 홀로 서서 하늘을 봅니다.

- 이해인의 시 <부끄러운 고백>

최근에 밀양 가르멜 수녀원 성당에서 내가 잘 아는 언니의 추모 미사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미사 20분 전쯤 주례사제가 고해성사를 보실 분은 지금 봐도 된다 해서 고해실로 들어갔는데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다가 내가 먼저 들어갔다 나오니 연이어 성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잘 아는 사제 앞에서 고해성사를 보는 일은 인간적으로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그날도 그랬지만 용기를 내어 먼저 고해실로 들어갔는데 성사를 보고나선 출가분한 자유가 내 영혼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성인들의 전기를 즐겨 읽었는데 어찌나 자신을 큰 죄인으로 비하 시키고 절절히 통회하는지 그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입회하여 반세기를 살아온 지금은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됩니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느님 앞에 유한한 내가 고백할 것은 오직 죄뿐이고 자랑할 것은 약점뿐임을 차츰 알아듣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이주에 한 번씩 묵상 나누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자신이 공동체에 잘못된 것을 서로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이가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은 그리도 겸손해 보이고 아름다운데 막상 내 차례가 오면 진땀이 날만큼 부끄럽고 늘 비슷한 걸 말해야 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져서 숨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대림 시기나 사순 시기에 판공 성사 표를 들고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교우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성사의 은총으로 얻게 되는 평화와 자유로운 행복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기계적으로 마지못해 고해성사를 보기보다는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듯 나의 죄를 사제에게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하며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후회뿐인 기도라도 자주

바치는 이 사순절에 내가 아직 살아서 참회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참회한 만큼의 기쁨으로 다가올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 사랑에 대해 / 너무 많이 말한 것이 후회됩니다 / 기도를 제대로 못하면서 / 남에게 기도를 가르치려 한 것도 후회됩니다 / 진정 후회없는 기도를 바치는 것이 / 세상에선 참 어려운 일이네요 / 오래고 오래 된 사랑의 하느님 저의 게으른 꾸념을 항상 내치지 않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해인의 시 <후회뿐인 기도>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시인 /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교리상식]

왜 신부님의 제의 색은 계속 바뀌나요?

☞ 사제가 입는 제의의 색에서 그날 미사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백색은 부활절과 성탄절, 성모 마리아와 천사의 축일, 순교자가 아닌 성인 축일에 입습니다. 홍색은 주님 수난 주일, 성금요일, 성령강림일, 십자가 현양일, 순교자 축일에 입고 녹색은 연중 주일과 그 주간에 입습니다. 자색은 대림시기와 사순시기, 위령미사 때에 입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장례미사와 연미사, 황금색은 대축일에 입습니다.

알렐루야'는 무슨 뜻인가요?

☞ 알렐루야(Allelujah)는 히브리어로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뜻을 지닌 일종의 환호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알렐루야의 환호성으로 대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사 때 복음을 읽기 전에 "알렐루야"하고 일어서서 외치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읽기 전에 기쁨으로 충만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고통과 수난을 묵상하는 사순 시기에는 알렐루야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PD 하느님, DJ 예수님」 / 바오로딸

영혼의 평화를 유지하십시오.

하느님이 당신 안에서 활동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하느님에게 들어 올리는 열정적인 생각들을 환영하십시오.

당신 영혼의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 -

솔로몬의 후계자가된 르하브암 왕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백성들에게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임금입니다. 솔로몬은 특히 이스라엘과 인근한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외교에도 많은 힘을 쏟아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룩했지요. 솔로몬은 정치, 외교, 경제 모두를 잘하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열왕기상11,1-13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은 츠레다 출신 에프라임 사람으로 힘센 용사였습니다. 솔로몬은 예로보암이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 집안의 모든 강제 노동의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때 예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 길에서 실로 사람 아히야 예언자를 만났습니다. 아히야 예언자는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으며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예로보암을 죽이려 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열왕기상11,26-40

열왕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은 스킴으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스킴에 모여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임금을 피하여 이집트로 달아나 있던 예로보암은 그곳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내니, 예로보암은 온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르하브암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힘겹게 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지우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후 어떤 일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열왕기상12,1-19

르하브암 왕의 미련한 행동은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 다윗이 크게 넓혀 놓았던 영토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하브암 왕은 왕권을 회복하려는 생각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족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르하브암 왕은 집권 후 처음 3년 동안은 성실하게 통치했으나, 왕권이 튼튼해지자 교만해져 주님을 배신하고, 이방인 신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참배하던 백성들도 하느님을 버리고 덩달아 우상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도 다행히 르하브암 왕이 죄를 뉘우쳤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부유하고 성공한 삶을 살 때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무거운 ()를 메우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 채찍으로 할 것이요.”(1열왕 12,11)

그래서 임금은 궁리 끝에 금송아지 ()을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에 올라가는 일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에 계십니다.”(1열왕 12,2)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학교구 흥보국장

성인말씀

만일 교회 안에 죄의 용서가 없다면 어떠한 희망도 없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해방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선물을 교회에 맡겨 주신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 성 아우구스티노 -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열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KKim@LACatholicCemeteries.org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마리암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3435 WilshireBl.#1110 LA(유티터블)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천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제바-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웁(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 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 영 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A: #FD74 1124 / (213)868-07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서박사 수학 과외지도

K-12, SAT ACT 책임지도

서울대, 아이오와 대학원, 교적경력

☎310-627-7204 서혜정 마르타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한 스 전 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